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완성도 ↑

진안군, 주요 전략·우수등급 확보 추진 방안 보고·투자 방향 등 공유

진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 운영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전 부서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우수등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주요 전략과 우수등급 확보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인구활력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 방향을 공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10년간 지원하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된다.

진안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56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주거·관광·교육·농업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촌유학, 청년창업 지원, 농촌 관광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성과로 진안군 인구는 2025년 1월 대비 128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세 완화와 지역 활력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진안군은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주요 전략과 우수등급 확보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인구활력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 방향을 공유했다.

군은 평가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강화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부서 협업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관

광·주거·지역개발 분야 주요 사업의 행정절차 진행 상황과 공사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서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군은 앞으로도 분기별 사업 추진 점검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투자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평화요양원,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무주군 평화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무주군 평화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2025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인 A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평가로 기관 운영과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화요양원은 기관 운영과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등 전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 및 제공 분

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설 환경과 안전 관리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무주군 평화요양원은 지난 2006년 12월 개원했으며 2011년 증축을 통해 현재 100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제1·2관 총 1,502㎡ 면적에 생활실과 치료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무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돌발 해충 월동난 예찰 나선다

무주군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돌발 해충 월동난(알) 예찰을 25일까지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찰은 농경지와 인접 산림에서 발생하는 돌발 해충의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무주군은 무주읍을 포함한 6개 읍면 농경지와 산림을 대상으로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매미나방 등 3종 해충의 월동난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 배, 감, 복숭아 등 유실수와 블루베리, 밤나무를 중심으로, 꽃매미는 포도, 머루, 매실 나무 및 지주 시설 중심으로 조사한다.

매미나방은 과수뿐 아니라 가로등 주변 나무와 시설물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예찰 결과를 기반으로 방제 시기와 범위를 설정하고 공동방제 등 체계적 대응을 추진해 돌발 해충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은 '장수군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수우체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달린다

장수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위한 공모 3년 연속 선정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인부살림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인 '장수군 행복우편 배달서비스'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은 장수군의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장수군 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8%에 달하는 8,508명에 이른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고립과 돌봄 공백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선제적 대응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수군은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추어 1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지역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밀착형 인부 확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서비스는 우체국 직배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 등을 전달하면서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살피고 배송과정에서 확인한 특이사항을 회신하여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즉시 연계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수우체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돌보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전통용기 발효 천연식초 교육 운영

진안군은 농촌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통 발효식품과 천연식초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전통용기 발효와 천연식초 마스터 클래스' 과정으로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회원 23명으로, △발효식품의 이해 △시연발효 식초 활용 △발효 미생물 기초 △전통용기 발효장의 이해 등 전통 발효식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발효 음료, 콤포차, 전통 장류, 발효 소금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통해 농촌여성농업인의 식문화 전문성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활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미생물 공급 성과

진안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작물 생육 증진, 퇴비 부숙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6종의 미생물을 연간 약 400톤씩 생산·공급하고 있다.

미생물 품질 관리도 철저하다. 멸균 배양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배양하며, 자가품질검사와 외부 전문기관 분석도 병행해, 무상공급임에도 민간 유통 제품과 견줘도 손색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BV균(바실러스 벨레젠시스)의 경우, 배양 후 7주가 경과한 이후에도 균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실제 농가 현장에서 고스란히 확인되고 있다. 진안군 안전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연은정씨는 현재 BV균과 클로렐라를 7~10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미생물 사용 이후 뿌리 활력과 생육이 개선되고 당도와 경도가 높아졌으며, 병해충 발생도 크게 줄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과수화상병 예방 선제 대응 강화

장수군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과수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기에 방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장수군은 올해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개화 전·후 3회 방제 체계에 맞춰 적용 약제를 선정하고 농가의 방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농약 디켓 방식으로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군은 과수 농가가 지정된 약제를 활용해 적기에 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군은 과수 병해충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과수 병해충 예찰포 20개소를 선정해 주 2회 정기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해충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